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On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길경숙(Kil, Kyung Suk)*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243명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사회적 지지 검사, 정서지능 검사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개방-폐쇄형, 자율-타율형의 순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정서지능은 정서인식, 감정이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양육태도는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지능에서는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에서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는 서로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아동에게 매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와 학교에서의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정서지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의 성공 키(key)는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는가? 인 듯하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정서'라는 말은 그리 중요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는 아니었다. 일반인 들이나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아동의 '정서발달' 보다는 '지적 발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십여년 전부터 정서와 정서발달을 인간발달과 적용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측면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Goleman(1995)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의 통제와 지연 만족이 가능하게 하고,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경험이 기초가 되며, 아동이 학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 작용을 하며 더불어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도 가정에서의 경험과 외부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Goleman(1995)은 영·유아기의 정서적 경험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 반응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정서는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피력하였다.

가정에서 부모는 바람직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육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인성 및 사회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일차적인 존재이다.

가정이란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며, 인간이 태어난 후 최초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학습하는 장이기 때문이다(이영, 조연순, 1995).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양육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과 사회의 하나의 문화 패턴으로서 자녀의 인성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 이상의 훌륭한 스승은 없다. 특히, 아동기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출생 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원만한 인성과 지능, 생활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의 근본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아동을 만드는 것도, 그들 부모와 가정 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기에, 문제아동의 행동 양식이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와 다른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은 가족, 친구, 이웃을 비롯한 한 개인과 관계된 사회적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 행동에 대한 인정, 정신적 또는 물리적 도움 등과 같이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차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며, 이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점진적인 성장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 시킬 것이다.

이처럼 부모환경과 주변 환경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미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방법이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김경영, 2001; 박수현, 2006; 양애경, 2003; 정선희, 2003). 요즘 들어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양육태도 변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초등 고학년 아동들이 느끼는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기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올바른 양육태도의 유형을 제시하고, 아동교육 현장에서 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상담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3개 학교로 서구, 동구, 중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 및 담임선생님이 300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성실치 못한 설문지 67부를 제외한 24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이 127명(52.3%), 여학생이 116명(47.7%)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으로는 5학년이 103명(42.6%), 6학년이 140명(57.4%)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로는 첫째가 102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막내가 65명(27.4%)으로 나타났다. 막내는 2자녀 혹은 3자녀로 중간에 끼인 형제가 없는 첫째와 그 아래 동생이 없는 아동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관리직이 73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116명(47.5%)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152명(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대학 졸업자가 140명(59.6%)으로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항목	빈도	%	변인	항목	빈도	%	
성별	남	127	52.3	모의 직업	가정주부, 무직	116	47.5	
	여	116	47.7		전문직	19	7.8	
학년	5학년(12세)	103	42.6		관리직	26	10.7	
	6학년(13세)	140	57.4		사무직	15	6.1	
형제순위	첫째	102	40.9		판매서비스직	36	14.8	
	둘째	54	22.8		생산직	1	.4	
	셋째	6	2.5		기타	31	12.7	
	막내	65	27.4		부의 학력	중졸이하	3	1.3
	외동	16	6.4			고졸	37	15.7
부의 직업	무직	2	.8			대학중퇴	3	1.3
	전문직	34	14.0	대학졸업		152	64.4	
	관리직	73	30.0	대학원이상	41	17.4		
	사무직	32	13.2	모의 학력	중졸이하	5	2.1	
	판매서비스직	36	14.8		고졸	47	20.0	
	생산직	17	7.0		대학중퇴	14	6.0	
	기타	49	20.2		대학졸업	140	59.6	
					대학원이상	29	12.3	

2. 연구 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원식(1984)이 제작한 검사지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32문항으로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개 하위 영역에 걸쳐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 이다.

본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따라 부와 모로 나누어 4단계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전혀 아니다(1점)로 배점하고 부정 문장에는 긍정 문장과 반대의 채점을 하여 답의 점수를 합산하며, 하위 요인별 총점은 32점으로(8~32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개방, 친애, 자율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2는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의 Cronbach α 계수이다.

표 2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신뢰도 수준

	문 항	Cronbach α
양육태도	개방 - 폐쇄	.77
	성취 - 비성취	.65
	친애 - 거부	.63
	자율 - 타율	.64

2)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문용린(1996)이 제작한 초등학생용(초등학교 3-6학년) 정서지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4가지 영역,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감정이입이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 질문지 문항 작성방법은 Likert척도에 따른 3점 평가로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문항수로 나누어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표 3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신뢰도 수준

	문 항	Cronbach α
정서지능 (.61)	정서인식	.61
	정서표현	.41
	정서조절	.42
	감정이입	.65

3)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지지척도는 김명숙(1995)의 논문에서 인용하였으며, 총 2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4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의 신뢰도 수준

	문 항	Cronbach α
사회적지지 (.90)	친구지지	.85
	가족지지	.89
	교사지지	.79

3. 자료 분석

설문지 응답이 완료된 자료를 부호화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및 일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분석, t 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의 특성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지지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이 2.60,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평균이 2.6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높은 양육태도 유형은 '개방-폐쇄'형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타율'형이 많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개방-폐쇄'형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타율'형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정서지능 점수는 4점 만점 중 2.2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중 평균 3.61로 나타났다.

표 5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지지의 기술통계

변 인		N	M	SD
부의 양육태도 (2.60)	개방 - 폐쇄	243	2.92	.39
	성취 - 비성취	243	2.14	.47
	친애 - 거부	243	2.14	.47
	자율 - 타율	243	2.72	.42
모의 양육태도 (2.62)	개방 - 폐쇄	243	2.89	.41
	성취 - 비성취	243	2.20	.48
	친애 - 거부	243	2.63	.45
	자율 - 타율	243	2.75	.41
정서지능 (2.26)	정서인식	243	2.67	.30
	정서표현	243	2.02	.39
	정서조절	243	2.02	.36
	감정이입	243	2.32	.41
사회적지지 (3.61)	친구	243	3.49	.78
	가족	243	4.05	.84
	교사	243	3.27	.68

2.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의 차이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개방-폐쇄'형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애-거부'형 양육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성취-비성취'형 양육태도와

‘자율-타율’형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검증

양육태도	부모	성별	M	SD	t
개방-폐쇄	부	남	2.98	.37	2.015*
		여	2.88	.41	
	모	남	2.94	.41	.723
		여	2.88	.40	
성취-비성취	부	남	2.19	.49	1.421
		여	2.10	.44	
	모	남	2.22	.46	.737
		여	2.18	.50	
친애-거부	부	남	2.54	.40	-3.219**
		여	2.71	.40	
	모	남	2.58	.48	-2.051*
		여	2.70	.42	
자율-타율	부	남	2.72	.44	-.197
		여	2.73	.41	
	모	남	2.76	.40	.102
		여	2.76	.42	

* $p < .05$. ** $p < .0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검증은 표7과 같다.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그러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검증

정서지능	성별	M	SD	t
정서인식	남	2.66	.31	-1.165
	여	2.70	.30	
정서표현	남	2.07	.41	1.722*
	여	1.98	.37	
정서조절	남	2.05	.38	1.827*
	여	1.99	.34	
감정이입	남	2.31	.44	-.540
	여	2.34	.38	

* $p < .05$.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친구지지와 가족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01$) 교사의 지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검증

사회적지지	성별	M	SD	t
친구지지	남	3.61	.81	2.288**
	여	3.38	.73	
가족지지	남	4.18	.83	2.342**
	여	3.93	.83	
교사지지	남	3.23	.71	-1.253
	여	3.34	.64	

** $p<.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9와 같다.

양육태도에서, 부의 '개방-폐쇄'형 양육태도는 모의 '개방-폐쇄'형($p<.01$) 양육태도, 부 '자율-타율'형 ($p<.05$), 모 '자율-타율'형($p<.05$)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부의 '성취-비성취'형 양육태도($p<.05$), 모의 '성취-비성취'형 양육태도($p<.05$)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지능의 정서인식($p<.05$), 감정이입($p<.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교사지지($p<.01$)에서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모의 '개방-폐쇄'형 양육태도는 부 '자율-타율'형 ($p<.01$), 모 '자율-타율'형($p<.01$)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부의 '성취-비성취'형 양육태도($p<.01$), 모의 '성취-비 성취'형 양육태도($p<.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지능과는 어떤 독립변인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교사 지지($p<.01$)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의 '성취-비 성취'는 모의 '성취 -비 성취'형 양육태도($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지능에서 정서표현($p<.01$)과 감정이입($p<.01$),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p<.05$)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모 '성취- 비 성취' 양육태도는 부 '친애-거부'형 양육태도 ($p<.05$), 부 '자율-타율'형 양육태도($p<.01$)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지능의 정서인식($p<.01$), 감정이입($p<.01$),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p<.05$),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부의 '친애-거부' 양육태도는 모 '친애- 거부'형 양육

태도($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인식($p<.05$), 감정이입($p<.05$), 친구지지($p<.05$), 가족지지($p<.05$), 교사지지($p<.05$)와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모의 '친애-거부' 양육태도는 정서인식($p<.05$), 감정이입($p<.05$)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표현($p<.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p<.01$), 가족지지($p<.01$),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부의 '자율-타율' 양육태도는 모의 '자율-타율'형 양육태도($p<.01$), 친구지지 ($p<.05$), 가족지지($p<.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모의 '자율-타율' 양육태도는 정서표현($p<.05$), 정서조절($p<.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친구지지($p<.05$), 가족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9 양육태도, 정서지능, 사회적지지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부 개방- 폐쇄	모 개방- 폐쇄	부 성취- 비성취	모 성취- 비성취	부 친애- 거부	모 친애- 거부	부 자율- 타율	모 자율- 타율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감정 이입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부 개방- 폐쇄	1														
모 개방- 폐쇄	.806**	1													
부 성취- 비성취	-.380**	-.331**	1												
모 성취- 비성취	-.429**	-.380**	.765**	1											
부 친애- 거부	-.005	.017	-.118	-.156*	1										
모 친애- 거부	-.025	.030	-.098	-.082	.744**	1									
부 자율- 타율	.149*	.197**	-.061	-.134*	.100	.039	1								
모 자율- 타율	.157*	.265**	-.064	-.088	.043	.116	.710**	1							
정서 인식	-.131*	-.113	.098	.211**	.151*	.157*	-.064	.013	1						
정서 표현	-.011	-.083	.218**	.111	-.091	-.188**	-.041	-.138*	-.076	1					
정서 조절	.033	-.082	.121	.025	-.055	-.101	-.078	-.252**	-.007	.330**	1				
감정 이입	-.171**	-.106	.192**	.227**	.163*	.153*	-.121	-.079	.220**	-.018	.239**	1			
친구 지지	-.057	-.074	.159*	.145*	.159*	.256**	.143*	.151*	.216**	.002	-.009	.181**	1		
가족 지지	-.084	-.056	.068	.050	.165*	.198**	.231**	.172**	.230**	.011	.125	.140*	.535**	1	
교사 지지	-.296**	-.217**	.094	.207**	.225**	.302**	-.098	.047	.235**	-.052	-.057	.369**	.320**	.366**	1

* $p<.05$. ** $p<.01$.

정서지능에서 정서인식은 감정이입($p<.01$), 친구지지($p<.01$), 가족지지($p<.01$),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정서표현은 정서조절($p<.01$)과 정서조절은 감정이입($p<.01$)과 정적상관, 감정이입은 친구지지($p<.01$), 가족지지($p<.05$),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에서 친구지지는 가족지지($p<.01$),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가족지지는 교사지지($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감정이입 등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정서인식 15.2%, 정서표현 11.6%, 정서조절 15.5%, 감정이입 20.1% 정도의 약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10-1
정서인식, 정서표현 요인들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i>b</i>	β	R ²	<i>b</i>	β	R ²
부개방	-.017	-.022		.196	.197	
부성취	-.101	-.157		.230	.280**	
부친애	.118	.161		.089	.093	
부자율	-.107	-.150		.048	.052	
모개방	-.012	-.016		-.167	-.179	
모성취	.182	.287**	.152	-.084	-.104	.116
모친애	-.009	-.014		-.200	-.238**	
모자율	.058	.079		-.129	-.137	
친구지지	.037	.095		.007	.015	
가족지지	.056	.155**		.014	.029	
교사지지	.020	.044		.001	.001	
상수		2.006			2.066	
F값		3.925***			2.839***	
누적 R ²		.113			.075	

** $p<.01$. *** $p<.001$.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의 회귀모델은 유의미하였으며($F=3.925***$),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인식에 미친 영향력은 15.2% 정도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어머니의 '성취-비성취'형 양육태도였으며($\beta=.287^{**}$),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beta=.155^{**}$)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의 회귀모델은 유의미하였으며($F=2.839^{***}$),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표현에 미친 영향력은 11.6% 정도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의 '성취-비성취'형($\beta=.280^{**}$)과 모의 '친애-거부'형($\beta=-.238^{**}$)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은 $F= 3.955^{***}$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5.5%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상대적 영향력의 요인으로는 부의 '개방-폐쇄'형($\beta=.229^*$), 부의 '자율-타율' ($\beta=.105$), 부의 '성취-비성취'($\beta=.250^*$), 모의 '개방-폐쇄'($\beta=-.148^*$)형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beta=-.242^*$)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에 대한 감정이입의 회귀선 역시 유의미하였으며($F=5.571^{***}$), 전체의 설명력은 20.1%를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상대적 영향력의 요인으로는 부 '친애-거부'($\beta=.152^*$), 모 '성취-비성취'형 ($\beta=.119^*$)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 지지($\beta=.301^{**}$)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2
정서조절, 감정이입 요인들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정서조절			감정이입		
	b	β	R ²	b	β	R ²
부개방	.212	.229*		-.070	-.066	
부성취	.192	.250*		.070	.080	
부친애	-.036	-.040		.152	.152*	
부자율	.090	.105*		-.038	-.039	
모개방	-.129	-.148*		.124	.125	
모성취	-.071	-.094	.155	.102	.119*	.201
모친애	-.003	-.003		-.063	-.071	
모자율	-.289	-.326		-.097	-.097	
친구지지	-.052	-.110		.059	.113	
가족지지	.105	.242**		-.011	-.023	
교사지지	-.013	-.025		.184	.301**	
상수		1.967			1.685	
F값		3.955***			5.571***	
누적 R ²		.115			.165	

* $p<.05$. ** $p<.01$. *** $p<.001$.

표 11은 정서지능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으며 ($F=5.179^{***}$), 전체의 설명력은 19.7%를 보였다. 아버지의 비성취형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자율적양육태도 유형이 정서지능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도 정서지능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정서지능		R ²
	b	β	
부개방	.084	.154	.197
모개방	-.041	.153	
부성취	-.094	-.083*	
모성취	.037	.205	
부친애	.081	.083	
모친애	-.063	-.153	
부자율	-.002	-.140	
모자율	.116	.006**	
친구	-.068	-.221	
가족	.043	.116**	
교사	.084	.154*	
상수		1.774	
F		5.179***	
누적 R ²		.157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이 2.60,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평균이 2.62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 점수는 2.26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며, 사회적지지 점수는 3.61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서지능의 요인 중 '정서인식', '감정이입'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들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

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 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인식하는 지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인식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자 기초가 되는 능력이며, 정서의 건강한 표현과 조절 및 활용에 기본조건으로서 가장 발달이 앞서 가는 부분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연구(박영애, 최영의, 최인진, 2000)들과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개방-폐쇄'형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더 높게 인식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애-거부'형 양육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일부 연구(김보선, 2002)와 일치했다. 즉 남아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개방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여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친애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서지능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남성 아동의 경우,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김순혜(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은정(1998), 윤현석(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정서지능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와 가족 지지(support)의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에는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김순혜(2003)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정서지능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10%정도의 약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서인식에 가장 크게 미치는 양육태도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아동의 정서인식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모가 거부적 양육태도와

부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능력 즉,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양육태도로는 아버지의 개방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와 모의 거부적 양육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 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인데, 감정이입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은 아버지의 친애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지지도 아동의 감정이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 가족과 교사의 지지는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중요할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와 특히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가 정서지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동의 감성능력 발달을 위한 새로운 부모양육태도 모델 및 부모교육의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양육태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정서의 핵심요인과 기본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의 측정 방식에도 자기보고식 외에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음을 감안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보완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영. (200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지지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37-45.
- 김보선.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혜. (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 김은정. (1998). 유아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세종문화사.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박수현. (2006).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최영의, 최인전. (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 양애경. (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석. (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 조연순. (1995). *아동의 세계*. 서울: 양서원
- 정선희.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교육대학원.
- 정원식. (1975).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Gibbs, N. (1995). The EQ factor. *Time*, October 9, 24-31.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USA: Bantom Books.
- Goleman, D. (1995). *What's your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www. Utne. Com/cgibin/eq.
- Katkovsky. W., Grandall. V., & Goods. S. (1967). Parental antecedents of

- children's beliefs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in intellectual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8, 455-476.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s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Rosen. B. C. (1964). Social class and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 *Child Development*, 35, 1147-1153.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On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243 Children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Spss/pc was run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This study abstract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Parent's 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retraining and teaching programs for teachers need to be accessed variably, considered with the results of this paper.

Key words : Parent's 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2006. 11. 14. 접수 : 2006. 11. 29. 채택